

암 I				번호: II - F - 3	
제 목	국문	간암사망률이 높은 농촌지역 주민에서의 간암위험요인 유병률			
	영문	Prevalence of liver cancer risk factors in a rural area with high liver cancer mortality			
저 자 및 소 속	국문	신해림 ¹⁾ , 공현주 ¹⁾ , 허윤주 ¹⁾ , 이덕희 ²⁾ , 손운목 ³⁾ , 김정일 ⁴⁾ , 김준연 ⁴⁾ , 김동일 ⁵⁾ , 신애선 ⁶⁾ , 유근영 ⁶⁾ 1) 국립암센터 연구소 2) 고신의대 예방의학교실 3) 경상의대 기생충학교실 4) 동아의대 예방의학교실, 5) 강북삼성병원 6)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영문	Hai-Rim Shin ¹⁾ , Hyun-Joo Kong ¹⁾ , yoon-Ju Heo ¹⁾ , Duk-Hee Lee ²⁾ , Un-Mok Sohn ³⁾ , Jung-Il Kim ⁴⁾ , Jun-Yeon Kim ⁴⁾ Dong-Il Kim ⁵⁾ , Ae-Sun Shin ⁶⁾ , Keun-Young Yoo ⁶⁾ 1) National Cancer Center, Research Institute, 2)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age of Medicine. Kosin University, 3) Dept. of Parasitology, Collage of Medicine. Kyeongsang University, 4)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age of Medicine. Donga University, 5) Kangbuk Samsung Medical Center, 6)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a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분 야	역 학 암	발 표 자	신해림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 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연구목적</p> <p>우리나라 2001년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간암사망률은 남자 10만명당 32.2명, 여자 10만명당 10.4명으로 지난 10년 전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였으나,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 (남자 10만명당 35.6명, 여자 10만명당 8.8명)을 더하여 보면 악성 신생물, 뇌혈관질환 다음으로 많다. 간암 표준화 사망비가 160%이상인 한 농촌지역에서 간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위험요인들의 유병조사를 통하여 이 지역에서의 간암예방사업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향후 간암관리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p> <p>2. 연구방법</p> <p>경남 농촌지역의 한 개 군내에서 40세 이상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4월부터 2001년 9월까지 3개 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수행하면서, 생활습관, 질병과거력 등에 관한 면접조사, 간기능, 간염검사, 대변내 간흡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p> <p>3. 연구결과</p> <p>건강검진 참여자는 2044명(남자 814명, 여자 123명)이었으며, B형 간염 표면항원의 양성률은 3.8%(95% 신뢰구간: 3.0-4.8), B형 간염 표면항체 양성률은 57.0%(95% 신뢰구간: 54.7-59.3)이었으며, C형 간염 항체 양성률은 5.8%(95% 신뢰구간: 4.8-7.0)이었다. 대변내 간흡충 양성율은 37.0%(95% 신뢰구간: 34.6-39.4)였다.</p>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률과 관련한 요인으로는 교육수준이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9년 이상) 교육을 안 받은 경우에 비하여 2.3배(95% 신뢰구간 1.1-4.8) 감염이 높았다. C형 간염과 관련한 요인으로도 교육수준이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는데, B형 간염의 경우와는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교육을 안 받은 경우에 비해 C형 간염 항체 양성율이 약 70% 정도 감염이 예방되었다(비차비=0.3, 95% 신뢰구간 0.1-0.6). 간흡충 감염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연령, 성, 교육 정도를 보정하였을 때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감염될 확률이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1.5배(95% 신뢰구간 1.2-1.9) 감염이 많았다.

4. 고찰

간암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160% 이상 높은 농촌지역에서 간세포암의 위험요인이라고 알려진 B형과 C형 간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교육정도가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B형 간염에 더 잘 걸리고, C형 간염에는 예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서의 간염의 전파요인이 다르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간담도암의 원인인 간흡충의 감염은 음주를 하면서, 감염원을 같이 섭취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전향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들 위험요인들의 간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